

눈길 끄는 특·특·행·정

“사고 때 한우 관리 대행합니다”

영암군, 한우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 추진

영암군은 한우농가의 갑작스런 사고때 한우 관리를 대행하는 ‘한우농가 헬퍼(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애경사, 질병, 불의의 사고 발생때 도우미가 한우 사양관리를 대행하는 것으로, 한우농가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축산업 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군과 영암축협 협력 사업으로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6000만원이 투입된다. 영암군 50%, 축협 25%를 지원하고, 이용농가는 25%를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된 한우 사육농가이며 도우미 이용 희망농가는 영암축협으로 신청하면 된다.

농가당 도우미 이용 한도는 7일 이내이고, 단가는 사육 규모별 1일 기준 5만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된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한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연중 없는 한우농가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고품질 한우 생산기반 조성·축산농가 소득 증대에



영암군이 한우농가의 갑작스러운 사고때 한우관리를 대신해주는 ‘한우농가 헬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영암군 제공>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인양한 바다쓰레기 수매합니다”

해남군, 수협과 위탁계약... 이달부터 시행

해남군이 조업 중에 어업인이 인양한 해양쓰레기를 수매하기로 했다.

4일 해남군에 따르면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 해남군수협과 사무위탁계약을 맺고 이달부터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을 실시한다. 수매대상은 어업허가 또는 어업신고를 한 어선이 해상에서 조업중 발생하거나 인양한 폐어구, 폐로프, 폐비닐, 통발어구, 페스티로폼, 기타 해양폐기물 등이다.

다만 조업중 인양된 어패류 및 오니(뱀), 어선에서 발생한 생활·음식쓰레기, 와이어 로프, 기관수리품 등은 제외한다.

매입대금은 근해장어통발 150원(개당), 연안통발 250원(개당), 폐어구·폐로프는 40 l 4000원, 100 l 1만원, 200 l 2만원을 매대당 지급한다. 어선입출항 확인대장과 수협의 어선입출항 확인서류를 대조하는 등의 절차도 진행해야 가능하다. 이 사업에는 총 5000만원이 투입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어업인이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생활터전인 바다를 청정하게 만들고 어획량을



해남 송지항에서 어업인이 바다에서 건져올린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영광 칠산대교에 ‘스마트 복합쉼터’ 들어선다

국비 35억 포함 총 65억 들여 전기·수소차 충전소 등 조성

영광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중 한 곳인 ‘칠산대교’ 인근에 각종 첨단 편의시설을 갖춘 ‘스마트 복합쉼터’가 들어선다.

영광군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1년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35억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공모에는 전국 8개 지자체가 신청된 가운데 전남에서는 영광군을 비롯해 무안·신안·구례군 등 총 4개 지자체가 최종 판문을 통과했다.

이 사업은 국토부 자율쉼터에 체험·관광·정보제공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복합 서비스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영광군이 조성 예정인 쉼터 명칭은 ‘더[THE] 영광 스마트 복합 쉼터’이다.

이 쉼터는 영광과 무안을 잇는 해상교량인 칠산대교 입구 1만224㎡(3098.8평) 부지에 조성한다. 친환경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최



하늘에서 본 영광 칠산대교 전경. <영광군 제공>

신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공간으로 꾸며진다.

영광군은 ‘건축 디자인 공모’를 통해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안락한 쉼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쉼터 조성에는 총 65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세부 시설별 사업비는 주차장·공원 기반시설 조성

에 20억원, 수소·전기차 충전소 15억원 등 국비 35억원이 투입된다.

농특산물 판매장과 휴게소 등 편의시설은 영광군이 군비 28억원을 들여 조성한다.

/영광=이준윤 기자 jlyee@kwangju.co.kr

‘여행도 하고 상품도 타는’ 진도군 모바일 스탬프 투어

운림산방·진도타워 등 22곳 대상

“멋진 진도 구경하고, 진도 특산물 받아 가세요.”

진도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진도군 모바일 스탬프 투어’ 행사를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진도군 거주자를 제외한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으며 운림산방, 진도타워 등 진도군 주요 관광지 22개소가 대상이다.

주요 관광지 중 18개 이상 모바일 앱 인증 완료하면 3만원 상당, 15개 이상 인증 완료 시 1만5천원 상당, 10개 이상 인증 완료 시 1만원 상당의 진도 특산품을 증정한다.

스탬프투어는 모바일 앱을 활용해 운영하고 있으며, 스탬프 투어에 참여하려면 플레이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스탬프 투어를 검색해 설치한 뒤 진도군 스탬프 투어를 선택하면 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코로나로 대부분의 축제나 행사가 취소돼 지역 경제가 침체해 있다”며 “가족·친구·연인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행사로 진도군의 관광 명소를 알리고 지역 농수산물 판매를 돕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나눔 세상 온정의 손길

목포상의, 목포복지재단에 성금 1000만원 기탁

목포상공회의소는 지난 3일 지역 저소득계층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목포복지재단에 성금 1000만원을 지장·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김종식 목포시장과 이한철 목포상의 회장, 이혁명 목포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함께 했다. <사진>

목포상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회장 취임식을 취소하고, 취임행사 비용과 회원 모금을 더해 이웃돕기 성금으로 내놨다. 앞서 목포상의는 지난해 3월에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성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이한철 목포상의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



두가 힘든 시기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진도군 백합회, 지역아동센터 위문·학용품 전달

진도군 백합회는 새학기를 맞아 최근 지역아동센터 7곳을 방문, 생필품과 학용품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사진>

백합회는 올해로 11번째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며 아이들에게 더 큰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진도군에는 아동 160여명이 임회지역아동센터 등 7곳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손경선 진도군 백합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 노력하

는 시설 종사자들의 노력에 감사하다”며 “꿈을 크게 가지고 꼭 이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Nim e Bnong Solar Energy